범패 보존·현대화 아직 할일 많아

범패와 작법무로 이루어진 불교전통의식 '영산재'와 범패 악보인 '각필악보'를 낱낱이 분석한 <한국의 불교음악>(운주사 刊)이 최근 나왔다. <한국의 불교음악>은 범패의 이론과 체계 확립을 위해 법현 스님(불교음악연구소장 · 사진)이 매진한 연구 성과물이다. 2000년 발견된 <묘법연화경> 각필악보에 대한 연구 성과도 포함됐다.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 법현 스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 등을 돌며 불교의식 관련 자료들을 찾아냈다. 책 발간을 계기로 지은이 법현 스님에게 불교음악의 세계와 각필악보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의 불교음악' 펴낸 법현 스님이 말하는 영산재

▲ 이론과 실기를 두루 경험한 스님이 정의하는 불교음악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한 모든 노래'를 말합니다. 크게 나눠보면 전문의식 음악인 범패(梵唄), 일반 의식음악인 평염불(平念佛), 찬불가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범패'는 범음의 가패라는 뜻으로 곡조를 붙여서 경문(經文)을 노래하거나 각종 게송을 불러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평염불'은 신도들이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평성으로 염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1920년 이후 서양음악의 악보인 오선보 형태로 제작된 '찬불가'는 현대적인 불교음악으로 볼 수 있지요.

이 가운데 의식음악 범패는 의식무용 작법무와 함께 '영산재(靈山齋)'로 구현됩니다. 영산재는 불교음악과 불교무용 대부분의 형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불교의례입니다.

영산재 · 범패 악보 체계화 … 불교음악 뿌리 밝혀
'묘법연화경' 각필악보에 대한 연구 성과 포함

영산재는 음악, 무용 결합된 완벽한 불교의례
'각필악보' 음 높낮이를 경전위에 자국 낸 것
한자를 4등분한 사성소리는 사성보와 연계
중국 티베트 등의 불교음악 집대성이 평생 원

▲ <한국의 불교음악>은 어떤 책입니까?

97년 <영산재 연구>, 2002년 <불교무용> 등에 이어 보다 상세하게 범패와 불교음악의 뿌리를 밝히기 위해 준비해온 책입니다. 이번 책은 영산재 중에서도 '범패'에 대해 집중 연구했습니다.

범패는 입으로 전승된 가락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찰에서 집중적으로 범패를 배우지 않는 한 일반 음악도들이 범패를 배우기는 어렵지요. 범패를 15년 이상 배운 스님들은 신라말 고려초기에 사용됐던 범패 전용 악보인 각필악보를 보고도 다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음악도들은 요즘 범패에서 사용하는 악보인 '사성보' '실성보'들을 보고 연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범패를 분석 연구한 <한국의 불교음악>과 함께 서양식 오선보로 범패 음악들을 옮긴 <불교음악감상>도 함께 냈습니다. 입으로 전승돼온 가락을 현대적 악보로 되살려 내 범패 보존 및 현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작업한 것입니다. 이번에 펴낸 이론서와 악보는 보다 많은 음악도들이 범패음악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책에서 범패의 악보로 알려진 각필악보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각필악보는 어떤 것입니까?

각필(角筆)은 대나무나 예리한 뿔 등으로 한자 옆에 발음이나 해석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에 자국을 낸 것을 말합니다. 각필을 사용해 기록된 각필악보는 각필로 음의 높낮이 및 음의 길이를 경전위에 그림처럼 그려 놓은 것입니다. 2000년 10월 우리나라 최초로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묘법연화경> 권1과 권8에서 각필악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발견된 우리나라 각필악보의 최고(最古)본입니다. 이는 동양 최초의 악보로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유량악보(有量樂譜)인 '정간보(井間譜)'보다 4백년 정도 앞서서 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각필악보의 길이는 1~8㎝ 등 다양합니다. 모양도 소리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표시돼 있습니다. 특히 한자를 4등분해 사성소리에 맞춰 높낮이를 표기하고 있는 점이 사성보와도 연계되면서 선으로 길이와 음높이를 표현한 것은 실선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 어떻게 각필악보를 발견하게 됐습니까?

범패를 배우던 25년 동안 왜 범패에는 악보가 따로 없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후기 풍속을 그대로 담아낸 감로탱에서 힌트를 얻었지요. 감로탱에서 연주하는 스님들이 촛불을 밝히고 경전을 들여다보며 범패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를 힌트로 저녁 불빛 아래에서 비스듬히 <묘법연화경>을 비춰보자 낮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각필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각필악보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된 감로탱은 영산재 의식과 무용, 복식 등을 복원 재현하는 연구 자료로도 큰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료이지요.

▲ 앞으로의 계획은?

불교음악에 관심들은 많으나 전문연구가는 드뭅니다. 좀더 많은 학자들이 불교음악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계속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편의 불교의식 관련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했습니다. 7년 동안 40여 편 정도 내놓았는데 영산재를 비롯해 다른 불교의식까지 이론 정비작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불교음악은 물론 외연을 넓혀 동양의 불교음악까지 연구하고 싶습니다. 일본 중국 티베트 남방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음악을 총 집대성하는 것이 평생의 원(願)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1700년을 이어온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들을 고취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공연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올해도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에서 공연했습니다. 내년에는 2월의 오스트리아 공연이 예정돼 있고, 7월 이탈리아 등 다수의 유럽공연을 기획 중입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윤이상 관현악', 진언노래집 '만트라송1' 나와

진언노래집 '만트라송1'(위)과 '윤이상 관현악'.

불자들이 들어볼만한 음반 '윤이상 관현악' '만트라송(Mantra Song)1'이 최근 출시됐다.

'윤이상 관현악'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타계 10주기 추모음반이다. 신나라에서 출시된 이번 음반에는 윤이상의 대표적인 관현악 작품 '무악' '서주와 추상' '광주여 영원히' 등이 실렸다. 윤이상의 제자인 재일동포 지휘자 김홍재(51)의 지휘로 1989년 4월 7일 일본 산토리홀에서 열린 도쿄교향악단의 '윤이상 특집 음악회' 실황을 녹음한 것이다.

불자들이 보다 쉽게 진언염불을 할 수 있도록 염불에 음악을 가미한 '만트라송1'은 불교 음악들이 대체로 느리고 무거워 따라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밝고 경쾌하게 만들어진 진언노래집이다. 미국 보스톤에서 학업중인 현수 스님이 노래하고 혜음 선생이 작곡 연주와 일부 노래를 맡아 제작했다.

보스톤 서운사 서광 스님의 후원으로 제작된 이번 음반에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준제진언(准提眞言), 정삼업진언(淨三業眞言), 약사여래대진언(藥師如來大眞言), 참회진언(懺悔眞言), 신묘장구 대다라니, 무량수불설 왕생정토주(無量壽佛說 往生淨土呪), 광명진언(光明眞言), 반야심경, 항마진언(降魔眞言), 보회향진언(普回向眞言) 등이 수록됐다.

동성 스님 선화展
(일본 한국문화홍보원서)

선화가 동성 스님의 일본순회 전이 11월 4일까지 주오사카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서 한국문화홍보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후지산 달마의 염원' 등 총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동성 스님의 달마도는 동공의 점안을 통해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넘어 본질적인 참모습을 드러낸다고 미술평론가 박용숙씨는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진여의 세계를 달마도의 점안으로 보여준다는 것.

스님의 달마도는 전통 수묵화의 양식을 따른다. 스님의 달마도의 화제는 '명일끽다활안간(明日喫茶活眼看)'은 내일 차 한 잔 드시고 밝은 눈으로 보라는 뜻이다. 스님의 달마도는 선불교의 선맥을 오롯이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동성 스님의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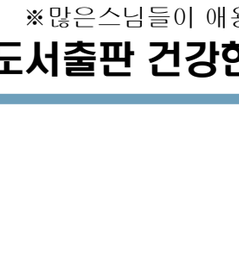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02)730-0705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5박 6일 / 매주 수 · 금요일 출발
여행경비 : ₩ 450,000원 (화동페리 이용)

일 자	도 시 명	교 통 편	순 례 일 정
제1일	인 천 석 도	화동페리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7시 승선, 인천항 출발, 선내 휴식 08시 석도항 도착 / 입국 수속 후 청주로 이동
제2일	청 주 치 박	전용버스	불교 문화 유산이 잘 보관된 "청주 박물관" 관람 "타산석굴" 참배후 치박으로 이동 호텔 휴식
제3일	치 박 제 남 태 산	전용버스	제남으로 이동 명대 4대 사찰인 "영암사" 순례 후 태안으로 이동 고려조 만공대사께서 창건하신 "보조사" 순례 케블카 이용 태산 등정 후 호텔 휴식
제4일	태 산 제 남 유 방	전용버스	석가모니 부처님의 佛齒를 모신 "보광사" 순례 제남 경유 유방으로 이동 양가부 민속촌 관람 호텔 휴식
제5일	유 방 석 도	전용버스 화동페리	석도로 이동 장보고 대사께서 창건한 "적산법화원" 순례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18시 출항, 선내 자유시간 및 휴식
제6일	인 천		09시 인천 도착 입국 수속 후 해산

여행조건
1. 국제선박료, 현지 차량, 입장료, 식사비, 중국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서 팁 등 제 비용 포함(개인 경비만 제외)
2. 선내 2박은 다인실 기준, 현지 호텔은 2인 1실 기준
3. 출발은 10명이상 가능
4. 10명이상 단체는 타 페리 이용 출발요일 변경 가능하니 문의 요망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신간


몸에 지니기만해도 병이 낮는 청혈기술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없다
이 재 복 편저
이책속에 귀하의 평생 건강이 있습니다.
100쪽 값 6,000원

- 죽음을 부르는 탁한피 당신의 피는 안전한가
- 꽉막힌 혈관 확 뚫어라
- 심혈관 질환의 주범, 고지혈증
- 고지혈증의 원인과 증상
- 증이라고 무시 했다간 큰코다친다.
- 한국인이 더 위험
- 심장병 환자에겐 시간은 생명
- 뇌졸증 주범은 뇌경색
- 몸에 지니기만 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 북한 의학박사가 발명한 방해석의 신비
- 18년간 1만명이상 임상시험
- 심, 혈관질환 치료율 98.8%
- 당뇨 합병증예방, 치료한다.
- 21세기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학적 대발명
- 38년간 고생하던 두통이 하루만에 없어졌다.
- 불면증이 4일째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 두통과 메스꺼움이 7일만에 없어졌다.
- 편두통에서 벗어났다.
- 두통으로 하루 8알씩 먹던 진통제를 끊게 되었다.
- 신우신염이 좋아졌다. - 이명증이 없어졌다.
- 하지 정맥류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 손, 발 저림이 하루 밤 사이에 깨끗
- 혈압 200-97이 3일만에 120-70으로
-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피가 맑아졌다.
- 소변에 혈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 극심한 생리통이 없어졌다.
- 25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안 먹게 되었다.
- 숨이 차고 , 불안, 가슴두근거림이 없어졌다
- 심장 압박에서 벗어났다.

※많은스님들이 애용하신후 질병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 02)3436-3206~7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